

2021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감 · 사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방역지침에 합당하게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사랑과 진심을 담은 소박한 선물이나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서로가 다짐하고 고백한다면 더욱 뜻깊은 명절이 될 것입니다.

진노가 돌아섰고"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앗시리아 제국의 침략과 같은 외적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것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사태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하여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함과 회복과 구원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국가적인 재난 중에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예언을 전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와 심판에만 머물지 않고 장차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지자의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찬양합니다(참고: 출 15:2). 이사야 선지자가 앗시리아 제국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요청하고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예언하였듯이, 우리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을 다시 기억해서 주께서 이 환난으로부터 반드시 건지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지자는 이제 감사하는 주체를 ‘내가’에서 ‘너희가’로 바꾸어서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4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대상이 더 많은 무리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무리에게 네 가지 명령을 선포하는데,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4절). 특히 마지막 명령인 ‘전하라’의 원래 말은 ‘기억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는 것을 열방의 이방 민족들도 과거에 듣고 알았으나 지금은 잊고 있으니 너희가 그 사실을 다시 기억나도록 만들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세계적인 재난의 시대에 이 세상의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5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다시 온 땅에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계적인 환난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그릇된 삶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재난의 문제와 해답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 시대보다 더욱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세례를 열정적으로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만이 아니라 온 땅과 만민들이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알도록 전하는 복음의 가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경배와 찬양 435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이사야 12:1~6.....	가족 중에서
설교	그날에 말하리라.....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온 세상 위하여(새505, 통268).....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그날에 말하리라

들어가는 말

코로나19와 함께 두 번째 맞는 추석 명절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실은 더욱 척박해졌고,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진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심한 고난의 현실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였습니다. 재난의 시대에서 맞는 금년 추석에 우리도 이와 같은 위대한 감사와 찬송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앗시리아 제국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던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	시편 139:7~12.....	다같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새413, 통470).....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창세기 50:24~26.....	가족 중에서
설교	인생의 영원한 비전.....	설교자
찬송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경배와 찬양 254).....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인생의 영원한 비전

들어가는 말

고인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으로”: 요셉은 자손 3대를 보며 110세를 살았고, 그의 임종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였다가 한 인간의 입관으로 끝을 맺는 창세기는 겉으로 보면 미완의 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위대한 희망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요

셉의 마지막 유언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라”(24절)는 첫 번째 고백에서 발견됩니다. 요셉은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삶으로”: 요셉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고 두 번째 고백을 남깁니다(24절). 여기서 ‘인도하여 내다’는 말은 ‘누군가를 시켜 불러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요셉은 삶의 목적을 애굽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상황을 따라 살지 않았고 섭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불러내어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일원이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삶으로”: 요셉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세 번째 고백을 남깁니다(24절). 요셉은 애굽이라는 세상

으로부터 단순히 자신을 구별시키려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받은 유업, 곧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당부하며 출애굽을 예고한 것입니다(25절).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비전을 품고 그것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말

사랑하는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남겨진 우리에게 더욱 뚜렷한 유업이 메아리칩니다. 첫째, 인생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야 하며, 둘째, 세상적인 성공이나 현실적인 안정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셋째,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에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자녀들과 믿음의 후대들을 일깨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